

참여작가 | 신민 전쟁과 여성

여성의 잉태, 전쟁 속 여성 등을 통해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발전된 모습을 생각해보는 프로그램

▶신청기간 : 6. 13 ~ 6. 24

▶진행시간 14~17시 (3시간)

▶참여대상 고등학생 1학년 (최대 20명)

▶진행방식 리서치, 스토리텔링, 입체작품 창작



‘신민’은 우리 삶에서 노동과 여성에 관심을 갖고, 삶의 현장을 관심 있게 둘러보며 창작하는 작가이다. 작가는 입주 기간 동안 ‘전쟁과 여성’에 관해 관심을 갖고 창작할 예정이다. 뉴스뿐만 아니라 영화, 책,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찾아보면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일제시기 등 근현대 에 국내외 안팎으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는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영화 ‘블랙북’, ‘코코샤넬’ 등)를 발견해볼 수 있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시대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영화, 뉴스, 온라인 자료 등 매스컴을 통해 여러 사건에 얽힌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역사 교과서의 배움 외의 전쟁과 여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찾아온 종이 자료들을 재료를 한 여성의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해보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그 당시의 여성 주인공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앞으로의 발전된 여성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차수	날짜	진행내용
1	7/2	오리엔테이션 인천아트플랫폼, 참여 작가와 프로그램 소개
2	7/9	여성의 잉태 1. 전쟁과 여성에 관한 조사한 자료 공유 2. 여성의 출산에 대해 작업과 관련해 이야기
3	7/16	다큐멘터리 감상, 아이디어 스케치 1. 얼마나 주변 사람에게 들은 임신과 출산 이야기 공유 2. 다큐멘터리(낮은 목소리) 감상 및 의견 공유 3. 전쟁 속 여성의 모습을 아이디어 스케치
4	7/23	홍상 제작 1. 아이디어 스케치 공유 2. 찰흙 틀에 준비해온 종이 자료를 덧붙이며 입체를 완성
5	7/30	홍상 제작, 의견 공유 1. 건조된 입체물에 채색재료를 사용하여 여성의 모습 드로잉 2. 작품 및 의견 공유

〈신민〉은?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하며 창작한다. 작가는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어 그 위에 10겹 이상 종이를 덧발라 캐스팅하고, 그 위에 연필과 크레용으로 채색하여 작품을 완성시키는 방법을 주로 작업한다. 개인전 <거대한 황금아치>(서교예술실험센터, 2015), <달기코의 딸들>(플레이스 막, 2011), 그룹전 <肅 미칠 전, 미쳐버릴 전>(대안공간 루프, 2015), 공연 출연 <비밀의 감각>(문화역서울 284, 2015) 등 다수의 전시에 공연에 참여하였다. www.daughternose.com

참여대상 중 · 고등학생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참가비 무료
참여신청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
(www.inartplatform.kr)에서 선착순 접수
>교육 게시판>교육일정>게시판 클릭>신청하기
▶섹션 별 참여자 모집 기간이 다르며, 하단의 “신청기간” 참조
문의 032. 760. 1006

매주 토요일,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예술가 6인(팀)과
‘중 · 고등학생’ 이 함께하는 실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토요 창의예술학교

섹션 I
나를 찾아줘
2016. 4. 23 ~ 5. 28
▶신청기간 : 4. 14 ~ 4. 20

2100년 당신의 스토리 코인 더 바이트 백 무브먼트
- 참가대상, 고등학생 1학년 · 영어 수업 진행
우연히 발견하는 나 윤현진
- 참가대상, 고등학생 2학년

섹션 II
나에게 솔직한 미술, 새롭게 발견하기
2016. 6. 4 ~ 6. 25
▶신청기간 : 5. 16 ~ 5. 25

재료가 된 오수 최선
- 참가대상, 고등학생 1학년
기록을 통한 나의 모습 최현석
- 참가대상, 중학생 2학년

섹션 III
잊지 말아야 할 것
2016. 7. 2 ~ 7. 30
▶신청기간 : 6. 13 ~ 6. 24

잊지 말아야 할 사건 한국 근대문학 권드씨어터
- 참가대상, 중학생 2학년
전쟁과 여성 신민
- 참가대상, 여자 고등학생 1학년



참여작가 | 더 바이트 백 무브먼트

2100년 당신의 스토리 코인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프로그램

▶신청기간 : 4. 14 ~ 4. 20

진행시간 10~13시 (3시간)

참여대상 고등학생 1학년 (최대 20명)

진행방식 리서치, 스토리텔링, 드로잉, 작품 제작(아외설치)

*영어 수업 진행

‘더 바이트 백 무브먼트’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재치와 유머를 갖고 도발적으로 표현하는 작가 그룹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가가 2014년에 진행하였던 <Oh, My God> 작품과 연계된다. 이 작품은 2100년 후의 상상의 새로운 종교 국가인 네오 조선을 배경으로 하며, 상상 속 미래의 국가에서 사람들의 믿음(종교)의 방식에 대해 상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주 개인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국가에서는 개인이 혼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휴대용 종교, 또는 혼자만이 간혀서 믿음을 신에게 전하는 누에고치형의 밀실형 종교 등이 생길 것이다. 또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종교별 동네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프로그램 역시 참여자들 간 미래 세상에 대한 상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프로그램 제목인 ‘스토리 코인’은 미래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긴 조형물이다. 참여자들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엉뚱하며 기발한 미래의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미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예측해보고, 그리고 미래를 통해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자 한다.

차수	날짜	진행내용
1	4/23	오리엔테이션 1. 인천아트플랫폼, 참여 작가와 프로그램 소개 2. 리서치를 하는 방법 소개
2	4/30	수집한 이야기 공유 1. 수집해 온 신화/미신 이야기 발표 2. 드로잉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 감상
3	5/7	설치를 위한 드로잉 1 1. 미래에 있을 모습에 관한 이야기 창작 2. 흑과 백 명암을 이용한 드로잉 제작
4	5/21	설치를 위한 드로잉 2 1. 드로잉을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변환 2. 작품 아외 설치 장소 확정
5	5/28	작품 관람, 의견 공유 1. 참여 학생들이 설치한 아외 설치 작품 관람 2. 참여자 간 의견 공유

<더 바이트 백 무브먼트>는?

이승연(한국)과 알렉산더 어거스투스(Alexander Augustus, 영국)로 구성된 팀으로, 서울과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신화 속의 신과 동물의 이야기들을 주요 소재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신화이고, 우리 모두는 신화의 주인공이다. 자신이 사라져도 이야기가 남는다면?”과 같은 생각들로 예술 작업을 이어간다. 2013년 런던 섬머셋하우스(Somerset House)에서 개인전을 선보이며 주목받았고, 이 작품은 2014년 영국 국립초상화박물관(National Portrait Gallery) 공식 아카이브에 등록되었다. www.thebitebackmovement.com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가(이하 작가)에게 작업실과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작 공간’이자,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교류하는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연 1회 공모와 심사를 통해 한국과 아시아, 유럽, 미주 등 다양한 국가, 다양한 장르(미술, 공연, 비평 등)의 작가들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작가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간 인천아트플랫폼의 작업실에 머무르며 실험적인 예술을 창작하게 됩니다. 더불어 작가들은 입주 기간 동안 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만납니다.

‘토요창의예술학교’는?

국내외 활발히 활동 중인 입주 작가가 강사가 되어, 학생들과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작가는 창작을 교육에 접목시켜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참여자들 간 의견을 주고받으며 감정을 솔직히 표출해보고 생각을 전환해 보는, ‘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구합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중·고등학생을 참여대상으로 합니다. <나를 찾아줘>, <나에게 솔직히 미술, 새롭게 발견하기>, <잊지 말아야 할 것>의 세 가지 색션으로 진행되며, 2016년의 입주 작가 6인(팀)의 예술 창작 활동과 연계한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방법

• 색션 별 모집기간이 다릅니다 • 정원 모집 미달시, 추가 모집합니다 (각 20명 이내 선착순 접수)

①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www.inartplatform.kr) ② 확정된 참여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회원가입 후 신청 (선착순 접수)

프로그램 참여 규칙

본 프로그램은 4~5주의 과정으로 창작을 완성해보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전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신 분에 한해 신청을 받습니다.

연간 진행 일정

구 분	상반기 프로그램	여름방학 캠프	하반기 프로그램
진행시기	4월 ~ 7월	8월	9월 ~ 11월
참여대상	중·고등학생	초등학생과 가족	중·고등학생
장 소	G2동 외	E동 외	G2동 외

참여작가 : 윤인선(Jullie Insun YOUN)

우연히 발견하는 나

참여자 개인이 갖고 있는 ‘감각’을 발견해보는 프로그램

▶신청기간 : 4. 14 ~ 4. 20

진행시간 14~17시 (3시간)

참여대상 고등학생 2학년 (최대 20명)

진행방식 작품 감상, 감각을 이용한 다양한 페인팅



‘윤인선’은 감각과 우연을 중심으로 회화 작업을 하는 작가이다. 우리는 보통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어떤 모양을 그린 것 같아. 이러이러한 내용을 전하려는 것 같아.’라고 하며, 그 그림을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작가는 이러한 해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림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감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화 통화를 하며 메모지에 볼펜을 끄적거리는 것, 멍 때리며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것 등이 바로 감각을 이용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재능,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나만의 감각 코드(특정 영화, 색, 이미지, 음악 등을 좋아하는 것 등)는 나만의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해도 나만의 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밑그림을 그린 후 색을 입혀야만 그림이 완성될 것 같은 미술 창작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참여자 개인의 본능과 오감을 재료로 창작해보며 나만의 감각을 발견해보고자 한다.

차수	날짜	진행내용	
1	4/23	오리엔테이션+페인팅 1	1. 인천아트플랫폼, 참여 작가와 프로그램 소개 2. 직관적 플라주
2	4/30	페인팅 2	직관적 플라주
3	5/7	페인팅 3	손을 제외한 신체를 이용한 페인팅
4	5/21	페인팅 4	스티커 기하학 페인팅
5	5/28	페인팅 5	눈을 감고하는 페인팅

<윤인선>은?

일상에서 발견된 이미지를 수집하고, 수집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림은 완벽해보이지 않은(결함이 있는) 사진 속 모습을 다시 회화로 그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감각을 배제한 그림 그리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매체 또한 그래픽, 인쇄, 오브제 등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여 회화를 실험한다. 2인전 <회박한 이름>(테이크아웃 드로잉, 2013), <w/Bobbette Rose>(Overture Cneter for the Arts, 미국 매디슨, 2011) 등이 있다. www.julieinsunyoung.com

참여작가 | 최선

재료가 된 오수

형식화된 미술 창작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해보고, 미술을 통해 갖는 가치를 발견해보는 프로그램

▶신청기간 : 5. 16 ~ 5. 25

진행시간 10~13시 (3시간)

참여대상 고등학생 1학년 (최대 20명)

진행방식 리서치, 삶 속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창작 실험



‘최선’은 ‘미술(美術)’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창작하는 작가이다. 예쁘고 그려진 그림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작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미(美)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검정색 볼펜을 마구 그어 종이를 꽉 채운 작품을 볼 때, 그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그림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평생 일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암암리에 정해진 것 같은 미술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림은 종이 위에 물감으로 그려지고, 조각은 점토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실험이다. 참여자들은 나에게 의미 있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재료를 발견하고, 함께 창작해본다.

차수	날짜	진행내용	
1	6/4	오리엔테이션	1. 인천아트플랫폼, 참여 작가와 프로그램 소개
2	6/11	현대미술 강의와 실습	1. 문제의식을 갖는 현대 미술작품 소개 2. 새로운 미술에 대해 소개 3. 작가의 ‘나미 프로젝트’ 실크스크린 실습
3	6/18	재료 탐구, 작품 제작	1. 흔히 사용하는 간단한 회화 도구 소개 2. 회화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온 재료 소개 3. 반복적 패턴에 대한 연구 4. 오수 회화 제작
4	6/25	완성 및 공유	1. 작품 완성 2. 의견 공유

<최선>은?

기존에 갖고 있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난 미술의 대안성을 고민하며 예술을 창작한다. 그리고 서구로부터 빌려온 회화의 형식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술에 녹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한다. 관람객의 체온에 녹아버리는 돼지 한 마리에서 짜낸 기름 그림과 공기 중에 유출된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 불산(Hydrofluoric Acid)을 채취한 그림 등을 선보인 바 있다. 개인전 <메아리>(송은아트스페이스, 2015), <매와 허공>(뱅크아트, 일본 요코하마, 2013), 그룹전 <후쿠타케 하우스 아시아 아트 플랫폼>(세토우치 트리엔날레, 일본 쇼도시마, 2013) 등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www.ssunya.net

참여작가 | 최현석

기록을 통한 나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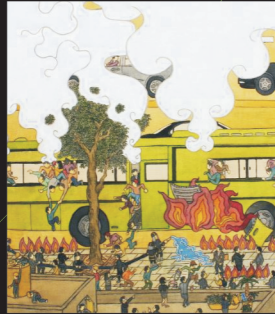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 창작을 살펴보고,
나를 솔직하게 표현해보는 프로그램

▶신청기간 : 5. 16 ~ 5. 25

진행시간 14~17시 (3시간)

참여대상 중학생 2학년 (최대 20명)

진행방식 롤링페이퍼와 스토리텔링, 드로잉, 협업창작



‘최현석’은 기록화를 중심으로 작업하는 작가이다. 기록화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그 사건이 미래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이다. 작가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야 하는 그림들 속에서 어떠한 힘을 가진 누구(무엇)에 의해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게 표현되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작가는 순수하게 사실을 기록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록을 통한 미술 창작 방법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이 기록하는 ‘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나의 말투, 행동, 모습 등을 상대방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과연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 나 스스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을까?

참여자들은 아주 쉽고 재미있는 롤링페이퍼를 시작으로 다른 참여자들을 기록하며, 그 기록을 통해 나를 찾아보고자 한다. 아마도 내가 생각했던 나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차수	날짜	진행내용
1	6/4	오리엔테이션 인천아트플랫폼, 참여 작가와 프로그램 소개
2	6/11	이야기 공유, 드로잉 1. 나에 대해 기록한 것들 소개 2. 롤링페이퍼로 참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기록 및 공유 3. 상대방의 관점에서의 다양한 나의 모습 드로잉
3	6/18	드로잉 1. 이전 수업에서 그린 종이 위에 나의 아지트 공간드로잉 2. 아지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사건들 드로잉
4	6/25	협업 창작, 의견 공유 1. 각자의 그림을 큰 화판에 붙여 하나의 세상 창작 2. 큰 화폭의 그림을 보며 작품 속 이야기 창작 3. 참여자 간 이야기 공유

〈최현석〉은?

살아가면서 마주한 현실 속에서의 불편한 감정과 기억들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작품으로 하나하나 옮겨낸다. 현실을 바라보는 냉철한 관찰자가 되어 순수한 기록화의 모습으로 전복시키는 창작을 진행한다. <기능정신-현실을 직시하다>(Artspace H, 2012), 그룹전 <멈추고, 보다>(국립현대미술관, 2015), <KOREA TOMORROW>(동대문DDP, 2014)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www.choihyunseek.com

참여작가 | 앤드씨어터

잊지 말아야 할 사건 한국 근대문학 편

한국 근현대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주제를 직접 찾아보고,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프로그램

▶신청기간 : 6. 13 ~ 6. 24

진행시간 10~13시 (3시간)

참여대상 중학생 2학년 (최대 20명)

진행방식 리서치, 문학작품 해석, 스토리텔링, 연극



‘앤드씨어터’는 2015년 한국의 근대문학 작가인 김유정, 현진건, 김남천, 이상, 채만식, 최서해 등의 단편 소설을 해석하여 타 공연 작가들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연극으로 선보인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 연장선으로서, 한국 근대문학과 연극을 주 매체로 활용한다. 학생들에게 필수 과정이며 성인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근대문학을 통해 쉽게 해석하여 역사를 되짚어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자 한다. 작가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잊지 말았으면 하는 주제(아버지 시대의 어려움, 세월호 등)를 다른 문학 작품을 이해해보고, 무대에 올라보고자 한다.

차수	날짜	진행내용
1	7/2	오리엔테이션 인천아트플랫폼, 참여 작가와 프로그램 소개
2	7/9	문학 작품 이해하기 1. 주제와 관련한 문학 작품을 소개 2. 문학 속 가장 인상 깊은 상황 발췌
3	7/16	상황 발췌하기 1. 발췌한 상황 이해 및 의견 공유 2. 한 상황에 대한 짧은 대본 창작
4	7/23	이야기 창작 및 연습하기 대본 완성 및 연습
5	7/30	무대에 서보기 1. 발췌한 내용과 발췌 동기에 관해 의견 공유 2. 상황극 발표

〈앤드씨어터〉는?

2008년 공연 형식에 대한 실험과 지속가능한 작업으로써의 예술 활동을 위해 창단되었다. 그룹은 연극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며,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새로운 상상력으로 세상과 관객의 매개자가 되고자 한다. 특히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 가치를 공유하는 작업,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5분 연극제X인전>, <한국 근대문학극장>, <창조경제제X2015>, 서울연극제 <미래도둑X2013> 등 다수의 공연을 기획 및 진행하였다. www.andtheatre.com